

시론



김 선 기

남도인문학연구원장·문학박사

요즘 ‘문학 빵’이 화제의 중심에 있다. 도서 출판 민음사와 GS리테일이 협업해 문학 작품과 작가의 세계를 빵이라는 일상의 먹거리에 담아낸 것이다. 얼핏 보면 엉뚱한 만남 같지만, 이 현상은 오늘의 문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이다.

오랫동안 문학은 책장 안에 있었다. 문학을 만나려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야 했고, 책을 펼쳐야 했다. 문학은 읽는 사람에게 먼 저 다가가기보다 독자가 찾아가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책보다 짧은 영상과 짧은 문장에 익숙해졌다. 몇 초 안에 정보를 얻고, 짧은 문장으로 감정을 나누는 데 익숙해지면서 긴 호흡의 독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학의 자리도 달라지고 있다. 서가에 머물던 문학이 빵집으로, 편의점으로, 카페로, 전차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책의 문장을 상품에 담고, 작가와 작품의 이미지를 디자인과 굿즈로 풀어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문학을 만나게

책장을 나온 문학, 빵집으로 가다

된다.

문학은 원래 삶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사랑하고 노동하며 기뻐하고 슬퍼했다. 그 삶의 언어가 문학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문학을 책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두었다. ‘문학 빵’은 어쩌면 그렇게 멀어졌던 문학을 다시 삶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하나의 문화적 신호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먹는다’라는 행위다. 먹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그것을 몸에서 스며들게 한다.

문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편의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언어와 생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한 끼의 음식이 몸을 살린다면, 한 문장은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한다.

그런 점에서 문학과 빵의 만남은 단순히 서로 다른 상품을 결합한 마케팅이 아니다. 몸을 음식으로 채우고 마음을 이야기로 채워온 인간의 오래된 삶의 방식을 오늘의 일상 속에서 새롭게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엔 분명한 경계도 있다. 문학의 대중화와 문학의 상품화는 다르다. 문학의 입힌 상품이 잘 팔린다고 해서 독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또한 빵 포장지에 작가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고 해서 문학을 읽은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빵을 사면서 만난 작가의 이름이 궁금해지고, 포장지에서

읽은 한 문장이 작품으로 이어지고, 작품을 읽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이 만남은 의미를 지닌다.

문학은 늘 새로운 매체와 만나며 영역을 넓혀왔다. 구전에서 문자로, 활자에서 방송과 영화로, 종이책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했다. 매체가 달라졌다고 문학의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이해하게 하는 언어와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동이었다. 오늘날 문학이 빵과 만나는 것도 문학이 시대의 새로운 매체와 공간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확장하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문학의 미래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사람들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빵을 사는 평범한 일상에 문학이 스며들고, 그 사소한 만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한 편의 책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 그런 작은 만남이야말로 문학이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

문학은 책 속에만 있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문학은 결국 사람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빵집에 들어온 문학이 반가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빵 하나를 먹고 돌아선 사람이 문득 한 문장을 기억하고, 그 문장이 궁금해 책 한 권을 펼치는 순간, 문학은 상품을 넘어 다시 살아난다. 빵은 먹고 사라진다. 그러나 문학은 마음에 남는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순간, 빵집은 서점이다.

현장칼럼



최 강 님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이 찾아온다. 기쁨과 슬픔이 있는 날도, 속상함과 화남,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순간도 있다. 이러한 감정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며, 어느 하나 틀리거나 숨겨야 하는 감정은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동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아동)는 마음속 감정을 알고 있어도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행동으로 먼저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속상한 마음이 짜증

‘느린학습자’ 아동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힘을...

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침묵이나 회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감정을 표현하는 힘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 작은 대화가 가장 좋은 연습이 된다. “오늘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었니?”, “지금 어떤 기분이 드니?”,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고 말로 표현하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감정을 대신 판단하거나 단정하기보다 아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힘은 조금씩 자라난다.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도 함께 배워야 한다. 화가 났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을 말로 설명해 보기,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적어 보기,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 보는 경험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차분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연습이 반복될수록 아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다루는

힘을 키워갈 수 있다.

「북권기금 경계선 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북권위원회와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이 수행하고 있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에서도 감정 표현과 감정 조절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여기고 있다.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카드와 감정보드게임을 지원하여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아동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귀 기울일 줄 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능력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힘이 된다.

오늘 아이의 마음을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작은 관심과 대화가 내일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고



박 준 천

담양소방서장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음식 조리과 전기·가스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 위험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명절 화재는 대부분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음식을 조리하다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전원을 그대로 두는 행동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명절 준비로 분주하다더라도 불을 사용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외출 전에는 가스밸브와 전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추석의 넉넉함에 안전을 더하다

이와 함께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연기를 감지해 신속한 대피를 돕고 소화기는 연기를 크게 번지기 전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설치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된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생활하는 주택을 방문했다면 소화기가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쉬운 곳에 있는지 감지기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함께 확인해보길 바란다. 사용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는 것 또한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안전 실천이다.

명절의 안전은 어느 한 사람의 주의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변을 함께 살피고 위험요인이 보이면 서로 알려주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가족 간에 나누는 짧은 안전 당부 한마디

가 부주의를 막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명절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아울러 부모님이나 가족 중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자가 있다면 ‘119안전콜 서비스’에 미리 등록해 두길 권한다.

병력과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가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향 방문은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고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며 화재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안전은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오래도록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소중한 마음이다. 추석에는 가족과 정을 나누는 것과 더불어 고향집의 화재 위험을 살피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도 함께 챙겨보길 바란다.

담양소방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특별시 생활권 통합 출발점은 시민이 우선이다

옛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대중교통 체계를 연계해 하나의 교통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광주와 전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구축한 이후, 이제는 생활권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은 달랐지만 그동안 시민들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출퇴근 등 이동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광주 도심과 전남 각 시·군, 섬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연계하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역환승센터를 설치하고 통합요금제와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농어촌형 교통수단,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도선을 연계 운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각 지역의 버스요금과 환승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지역별 교통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어

촌 간 광역환승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통합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통합 방식은 조례 제정 이후 본격화 되겠지만, 지역별로 다른 통합요금제의 수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환승 가능 시간과 할인율, 시행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세부안을 이끌어 내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특별시가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개선을 비롯해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BRT와 버스전용차로, 노선버스 중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도 수립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광주와 전남 각 지역의 버스요금과 환승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이를 하나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도 지역별 이용량과 노선 특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이 행정 편의가 아닌 이용자인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안공항 참사 현장 수색 더 꼼꼼히 진행돼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무안공항 참사 현장의 심층구역 재수색이 마무리됐다. 지난 4월13일부터 진행된 심층구역 재수색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조각 약 1천600점과 유류품 약 900점 등 모두 2천500점이 수습됐기 때문이다. 이중 유해 추정 조각 980여 점은 DNA 검사를 통해 희생자 113명의 유해로 확인됐고, 나머지 유해 추정 조각에 대한 DNA 검사는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물론 심층구역 수색이 종료됐다고 해서 현장 수색까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로컬라이저와 그 주변, 육안 우선 수색 지역은 아직 남아 있다. 특히 로컬라이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대상이기도 해 수색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유가족협의회가 오는 30일 항철위와 면담을 갖고 추가 수색 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2024년 12월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아픔과 깊은 충격을

안겨졌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단순한 하나의 사고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또한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179명의 희생을 치른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계 기관이 DNA 검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혼신을 다해야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서 항철위의 조사 결과가 유가족들과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조사 과정이 무엇보다 투명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현장의 수습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서부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장기간 이어질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픽 뉴스

가계부채 비율 10년 만에 최저...정부 목표치 조기 달성 눈앞

올해 2분기 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해 정부 목표치 조기 달성을 눈앞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명목 GDP가 더 빠르게 늘면서 이 비율이 계단식 하락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3% 안팎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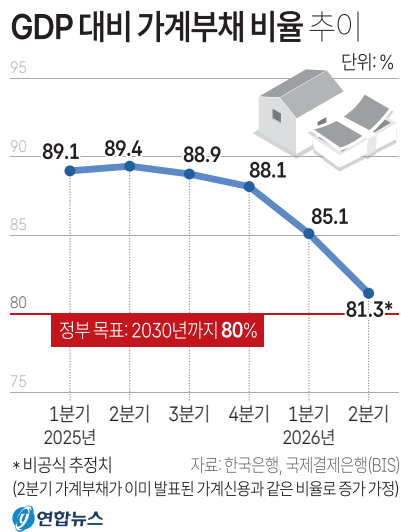
한은 자금순환 통계 등을 기초로 작성된 BIS 1분기 가계·비영리단체 부채 잔액에 한은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을 적용하고, 이를 최근 4분기 명목 GDP 합계로 나눈 결과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2분기 가계부채가 이미 공표된 비슷한 통계인 2분기 가계신용과 같은 비율로 늘었다고 가정한 자체 추정치다.

이 추정치가 실제 수치로 확인되면 BIS의 과거 통계와 비교해 2016년 2분기(80.2%)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올해 2분기 말 추정치와 목표 수준의 차이는 약 1.3%포인트(p)로, 목표 시한을 4년여 앞두고 격차가 크게 좁혀진 셈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濶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로3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편집국	광 고 문 의	650-2099	마 케 팅 본 부	650-2070	업 무 국	650-2020	업 무 국
	경 영 지 원 국	650-2011	사 업 본 부	650-2007		650-2020	
	광 고 국	650-2016	광 고 국	650-2017		650-2017	
	문 체 부	650-2065	문 체 부	650-2065		650-2065	
	문 체 부	650-2065	문 체 부	650-2065		650-2065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